

KLTA NEWS + 2012

민북 희귀·멸종위기 식물, 산림습지 생태계 조사 박차



희귀 식물 개별꽃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운영균)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화천 대성산, 한목령 지역의 식생조사 및 인제 달산령 지역 조사 등 민북지역 산림 생태계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대성산(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일원)과 한목령(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일원)은 '11년 12월 30일자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되는 민통선 지역이다.

또한 민통선 이북에 위치한 달산령(인제군 서화면 가천리)지역도 그동안 인간의 간섭이 제한되어 한반도 고유의 임상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현재 추진 중이다. 연내 완료되는 대성산과 한목령 지역의 식생조사를 통해

- ▶ 희귀·멸종위기식물, 유용식물, 산림습지 등 산림생태계 실태 파악
- ▶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자료 구축
- ▶ 산림천이 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영구 표준지 설치
- ▶ 대성산, 한목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 보전·관리방안 제시등이 마련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대성산·한목령 식생조사 용역의 중간보고회 및 달산령 보호구역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9월6일 실시하여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운영균 청장은 이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식생조사 및 사전조사를 통하여 대성산, 한목령 및 달산령 일대 지역의 산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자료가 구축되어 생물다양성 유지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산림생태계 유지·관리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 국유림관리단
최용수(033-738-6262)

최고의 금강소나무 육성 위해 머리 맞댄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14일(금) 13시부터 소광리 금강소나무 숲 일원에서 대학교수, 기술사 등 산림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강소나무 숲의 후계숲 육성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금강소나무 숲의 지속적인 생태적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금강

소나무 후계숲 조성, 종자가 떨어져 자연 발생되 어린 나무의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관석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고의 금강소나무 숲을 육성하고 보전 관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금강소나무는 조선시대 왕실과 국가사업에 필요한 목재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었을 만큼 목재로써 가치가 우수하고 숲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황장봉표 등이 세워졌으며, 현재는 산림청에서 소광리 금강소나무 숲 5,467ha에 대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산지이용 등 산림분야 규제개혁 계속 추진”

경기활성화유도·국민부담완화 목표로 올들어 24개 규제 개혁 과제 완료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산림 분야의 대표적 규제 로 손꼽혔던 토석채취와 산림 내 문화재 발굴 등의 경우에 적용되던 산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모두 24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산림청은 지난 2008년부터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에 대해 그 적정성과 합리성을 따져 규제개혁 과제를 찾아 개선하고 있다.

산림청은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을 올해 규제개혁의 목표로 삼아 산지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완화, 토석채취 허가범위 확대 등 산지이용 부문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만든 '골재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은 토석채취 허가 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어려움을 덜고 채석활동으로 인한 자연훼손을 막는 데 중점을 둔 대표 사례다.

각종 산림행정 민원처리기간도 대폭 단축했다. 산림 문화·휴양교육 프로그램 인증심사와 산림보호원 지원신청, 숲사랑지도원 위촉,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등의 처리기간을 크게 줄였다.

이규태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연말까지 산림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계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은 산림청 홈페이지 '규제개혁추진코너'에서 산림청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법무감사 담당관실
최현수 주무관(042-481-4282)

멸종위기종 산닥나무 자생지복원 길 열렸다

국립산림과학원, 남해 망운산에 묘포장서 발아한 5년생 32 그루 심어 복원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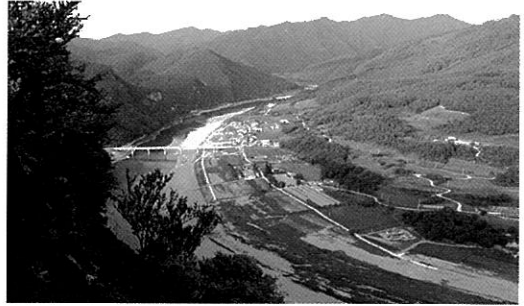
산림청이 희귀·멸종식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152호 남해 산닥나무의 자생지를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닥나무는 진도와 남해도, 강화도 등지에서 자생하는데 껍질과 뿌리의 섬유질은 종이 원료로 사용된다. 희귀하고 보존가치가 있어 1962년 남해 산닥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지만 주변 식생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개체 수가 급속히 줄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구길본)은 이달 초부터 남해군과 함께 경남 남해 망운산 소재 사찰인 화방사 인근 숲에 5년생 산닥나무 32그루를 심어 자생지 복원작업에 나섰다. 복원지에 심겨진 나무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자생지에서 씨앗을 채취해 진주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묘포장에서 발아시킨 것으로 자생지에 자라는 나무와 유전형질이 동일한 개체들이다. 산닥나무 자생지 복원사업은 국립산림과학원이 희귀·멸종 위기식물, 천연기념물, 유명 숲 등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자원을 잘 보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통유전자원보존 사업'의 하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희귀·멸종위기식물 보존 우선순위 120호로 보호 중인 남해 산닥나무의 보존연구를 계속하고 자생지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남부산림자원연구소 신현철 박사는 "산닥나무 멸종에 대비하고 개체도 늘리기 위해 진주시 문산면 유전자원 현지외보존원에서 산닥나무 개체 300본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 : 남부산림자원연구소

신현철 연구관(055-760-5030)

“산촌개발사업마을, 특성살려서 활성화”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주민역량강화·체험프로그램 등 마을별 특성화 계획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전국의 산촌개발사업 마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21일부터 열흘간 실시됐던 산촌개발사업 마을 240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별 특성화를 목표로 하는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촌 활성화 대책은 산촌주민 역량 강화, 산촌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산촌개발사업 마을간 연계체계 구축, 산촌관련 제도 개선 등 네 가지 큰 분야로 구성돼 있다.

활성화 대책의 기초자료가 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240개 마을에 보조금 및 융자의 형태로 모두 327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세부 내역별로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가장 많은 1122억원(34%)가 투입된 것을 비롯해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1084억원(33%), 산촌녹색체험 시설사업에 795억원(25%)이 각각 지원됐다. 특히, 산촌녹색체험 시설 중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은 전체 예산액의 18%인 599억원을 차지했다.

운영실태 조사에서는 240곳 중 50곳(21%)가 '우수' 평가를, 128곳(53%)은 '보통' 평가를 받는 등 전체의 74%인 178곳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62곳(26%)은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미흡 마을의 대부분은 마을대표의 잦은 변동, 시설 노후화, 주민의지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전 국장은 “운영이 미흡한 마을은 시설물을 처분하는 등 지자체별로 철저한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며 “산촌개발사업 마을 활성화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서 각각의 산촌마을이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이광호 사무관(042-481-4124)

홍릉숲 단풍달력으로 제철 단풍 감상하세요

홍릉숲에 자라는 45수종 단풍일정 한눈에 파악가능한 단풍달력 공개

홍릉숲 단풍달력

월	화	수	목	금	토	일
9/24	25	26	27	28	29	30
10/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평년일정을 되찾은 2012년 홍릉숲 단풍달력이 나왔다. 홍릉숲 단풍달력이란 국립산림과학원이 소개한 서울 홍릉숲에서 자라는 단풍나무, 화살나무, 신갈나무 등 단풍이 드는 나무 45종의 단풍개시 시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이상기온으로 10월 이상 늦어졌던 단풍개시 시기가 올해는 예년과 같이 9월 하순에 시작됐다. 이에 따라 단풍달력도 첫 단풍이 시작된 지난 달 25일부터 10월 하순까지 평년과 같은 순서대로

채워질 수 있게 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구길본)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홍릉숲 단풍달력을 공개했다. 단풍달력은 지난달 25일 홍릉숲에서 시작된 은단풍을 선두로 해 꽃단풍, 삼손단풍 같은 다양한 단풍나무 수종을 지나 백합나무, 화살나무, 신갈나무 등으로 이어지는 10월 하순까지의 나무별 단풍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김선희 박사는 “지난달 말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은 이달 초부터 오대산에서 치악산, 월악산, 속리산으로 남향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일교차가 크고 맑은 날이 지속되고 있어 색깔이 고운 단풍을 지난해보다 여유 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의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김선희 연구사(02-961-2617)

아픈 나무는 나무병원에 갖고 오세요

국립산림과학원, 6일 오후 홍릉숲에서 국립나무병원 수목진단기술컨설팅



국립산림과학원의 나무 박사들이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피해에 관한 상담을 해주는 행사가 열린다. 사람이나 동물이 아플 때 병원을 찾듯이 나무병원 외래진료가 실시되는 셈이다.

올해 1월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무병원을 개원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6일 오후(12시~4시) 서울 산림과학관 앞 쉼터에서 홍릉숲 국립나무병원 수목진단 기술컨설팅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해 진단 대상 수목에 대한 상담을 하고 진단도 해 준다. 진료 분야는 병해충, 수목생리, 토양 등으로 수목 피해와 관련된 전 분야를 망라한다. 진단 대상 수목을 직접 가져 오기 어렵다면 이상 증상이 나타난 부위(잎, 가지 등)나 진단에 참고가 가능한 사진 및 이미지 파일을 갖고 오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고상현 박사는 “이번 행사는 생활권 산림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이후로도 민원인은 국립산림과학원 나무병원(02-961-2677)으로 전화 접수를 하거나, 피해 시료를 갖고 직접 방문하면 신청순서에 따라 상담을 통한 수목피해 진단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방에서는 가까운 지역의 공립나무병원이나 수목진단센터에서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고상현 연구사(02-961-2662)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12일부터 20일간 전국 229개 지역 집중단속...소나무 불법 유통 근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범위 확산되고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하고 있는 가운데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12일부터 20일간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61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은 이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한다. 또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경찰·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윤병현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이후 총력방제로 재선충병의 밀도는 감소됐지만 신규발생지 및 확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민병준 주무관(042-481-4069) ☎